

기후변화협상 모드로 전환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복수 시나리오가 발표(8.4)되고, 이어서 UN 기후변화협상(8.10~14, 독일)이 개최됨에 따라, 제3차 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을 개최, 향후 하반기에 본격화될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산업계의 대책이 숙의되었다.

지식경제부는 8.5(수)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그리고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산관학포럼 회의에서 그간의 기후변화 국제협상 경과 및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쟁점 이슈들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발표하였다.

포스트 교토체제를 결정하게 될 12월 코펜하겐 협상을 불과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금번 8월 협상부터 협상문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감에 따라, 하반기 UN주도의 기후변화협상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의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의무 감축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포스트 교토체제 下 의무감축 수준에 먼저 합의하는 등 솔선수범하기를 촉구한다.

한편, 미국 주도의 MEF 회의는 지난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7월 개최된 주요국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Smart Grid를 포함한 8개 기술이 주요 전환적 기술로 선정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8개 기술이란 스마트그리드(한국, 이태리), 에너지효율(미국), 태양에너지(독일), 탄소포집·사용·저장(호주, 영국), 고효율·저배출 석탄기술(일본, 인도), 첨단자동차(캐나다), 바이오에너지(브라질, 이태리), 풍력(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이다.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이태리와 함께 공동의장국(Lead country)으로 선정된 바, 11.15까지 동 분야에 대한 국제로드맵을 작성하여

금번 포럼에서는

2007년 처음 도입된 社内배출권거래제 참가기업의 현황과 성과도 소개되었다. 특히, 국내 대표 기업인 LG화학과 SK에너지에 대한 배출 통계체계 구축, 거래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장간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된 점을 강조했다. '07~'08년 LG화학, SK에너지, 발전5社, '09년부터 지역난방공사, GS칼텍스 참여하였다.

정상들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EU 및 중국 등 주요국들의 최근 기후변화 협상 동향 등을 설명하고, 선·개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여부 및 교토의정서 개정 등 주요 쟁점들의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국제협상 전략을 협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8월 협상(8.10~14, 독일 분)은 비공식적 협상이지만, 금번 협상부터 협상문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므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향후 논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8.4일 우리나라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가 발표됨에 따라 기후변화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및 위상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추진 상황 등을 상호 협의하고 산업계 등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산업계는 중기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후변화 협상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주력업종의 국제 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향후 산업계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하게 국제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이 「산관학 포럼」을 본격 가동하여, 하반기에 본격화될 기후변화 협상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한편, 금번 포럼에서는 2007년 처음 도입된 社内배출권거래제 참가기업의 현황과 성과도 소개되었다. 특히, 국내 대표 기업인 LG화학과 SK에너지에 대한 배출 통계체계 구축, 거래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장간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된 점을 강조했다. '07~'08년 LG화학, SK에너지, 발전5社, '09년부터 지역난방공사, GS칼텍스 참여하였다.

이를 해외 사업장 및 계열사간 배출권거래제로 확대 실시하고,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우수사례(Best Practice)로 보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 되는 첫 사례인 만큼, 이를 시금석으로 삼아 국내 기업들의 경험 축적 및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09.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약 23개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시행될 모의 배출권거래제에 기업들은 큰 관심을 표명했다.

앞으로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기후변화 국제협상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산관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주요 정책이슈들에 대해서는 소규모 정책그룹들을 활성화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내배출권거래제의 사업목표는 산업계의 社內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및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국내 산업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 확대로 사내 배출권거래제 보급을 통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전파하는 것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정부(에너지관리공단)는 '07년부터 사내 배출권거래제 추진 기업과 협약을 체결, 시스템 구축, 연구, 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 실시하였다. '07~'08년 LG화학, SK에너지, 발전5社, '09년부터 지역난방공사, GS칼텍스 등이 참여한 기업이다.

협약 체결기업은 社內 사업장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社內 배출권 모의 및 시범거래 실시 등 사업계획상 업무를 추진한다. '07~'08년에는 온실가스 통계체계 구축, 거래시스템 개발 및 거래제 설계, 인력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둔 반면, '09년부터는 실제 사내 사업장간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를 통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실시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에 既 구축된 거래시스템(KEMCO-ETS)을 통해 거래가 실시된다. LG화학은 국내 11개 사업장간, SK에너지는 10개 사업장간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해외 사업장 및 계열사간 배출권거래제 확대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기업의 社內 사업장간 뿐만 아니라 사내 배출권거래제를 실시 중인 기업간에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간 거래를 우수사례(Best Practice)로 보급하여 향후 배출권거래제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